

[보고]

차기 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진행 경과 보고(5)

지난 4차 경과 보고(4. 30.) 이후 차기 총장 선임 관련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총장선거 관련 참여방식 협의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추천 완료(5. 3. 추천 및 통보)

- 참여방식 협의위원: 임동학(행관협), 황성규(노조 대의원회), 이승희(노조 집행위원회)
- 선거관리위원: 안형철(행관협), 이용욱(노조 대의원회), 최준혁(노조 집행위원회)

2.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 제정 마련 실무협의 회의(5. 3.)

- 직원위원: 강선구(대의원의장)
- 본 회의는 법인 주관 협의 결과에 따라 총장후보 선출에 관련한 법률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였습니다. 즉 총추위 규정 제정이 총장후보 선출의 제도적 근거이므로 직원사회의 의사는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해당 법령 및 정관 등 여타 대학의 제도도 참고되어야 합니다.
- 본 회의에서 교수회의 시안은 제출되었고, 이에 본 노조는 직원사회의 의사 및 여타 대학의 제도를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회의는 법인 주관 협의를 전제로 한 초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공식 합의체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법인 주관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관련 회의 내용에 따라, 교수회가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관련 시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교수회 긴급 통신 제13호: 총장 후보 선거 관련 2차 간담회 결과 보고 / 2021. 4. 14. 게시글]

3.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1차 회의(5. 12.)

- 총장후보 선출 원칙 즉 총추위 규정 제정을 전제로, 그리고 대학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참석한 본 회의에서 교수회 추천 위원 측에서 사전 준비한 선관위 일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추위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고, 일반적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에 의거하여 선거의 관리를 위임받아야 할 선관위가 잠정 선거일자를 공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령을 오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본 노조는 총추위 규정이 제정되고 선거규정이 완비되어 선거 수행 및 관리가 위임될 때까지 선관위 구성 및 참여를 보류하는 검토를 하고 있음을 직원사회에 양지해 드립니다.
- 또한 선관위가 11인의 교원위원과 3인의 직원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면서, 합의를 우선하지 않고 과반수 의결 원칙을 천명하고, 잠정 선거일자를 학기말 이전으로 공지하는 것은 중차대한 총장후보 선거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여 여름방학을 염두에 두었다면 대학에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교직원의 본분에 적합한지도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4. 총장선거 관련 참여방식 협의위원 1차 회의(5. 12.)

- 민주성의 담보와 법인 주관 협의 결과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교수회 임원단과의 신뢰에 기반하여 직원 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 협의는 법인 주관 협의에서도 추진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이므로 직원협의단은 성실히 임할 것이며 매우 고통스럽지만, 인내와 절제가 요구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차 회의에서는 교수회 측의 의견을 접수한 상태이며, 본 직원협의단은 다음 회의 시에 직원사회의 답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시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위기에 처한 대학 운영을 조속히 안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구성원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제도적·절차적으로 합당한 총장후보 선거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 5. 13.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